5면에서 계속

간 물건을 마련해 돕겠거니와 다만 형이 주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 하니 당강이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가득하여 엎드려 기면서 능히 일어나지를 못하다가 부복하고 대답하였다.

" 내가 득죄한 이래 황친도 이미 돌아가고 처 또한 뒤이어 죽었는데 가재와 전택田宅마저 국가에 적몰되니 친척이 저버리고 향당에서도 천대하는지라 무엇을 좀 빌리려 해도 얻을 수가 없었소. 황친의 옛 노복 서상徐祥이란 자를 찾아가 수백금을 얻어 가지고 전매轉買하는 장사를 해보러 나섰다가 옥전현玉田縣에 이르러 노중에서 도적을 만나 겁략을 당했소이다. 부자가 겨우 탈신은 해나와 걸식으로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지금 달포가 넘었소. 어찌 옛벗이 푸른 구름 위에서 스스로 이르러 오늘과 같이 내려주실 것을 뜻하였으리까. 이 어찌 한 그릇 밥으로 예상翳桑(춘추시대 진晋의 수산首山 사냥터에 있던 지방)에서 굶어죽던 영첩靈輒(영공靈公의 위사로서 뒤에 창을 거꾸로 돌려 그에게 밥을 주었던 조선자趙宣子를 살려 보은한 사람)을 구한 것일 뿐이며 한 두레박의 물로 말라죽는 물고기를 살리는 것과 같을 뿐이겠소이까. 지금 이것을 지니고 고향에 돌아가 생계의 밑천을 삼고자 하니 옛벗의 은혜는 오로지 결초結草로 보은할 길을 도모할 뿐이오. "

이에 안여식이 ' 근자에 천하의 일을 보니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이네. 내 또한 벼슬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몸을 온전히 할 계책을 세웠는데 돌아보니 황상皇上의 은혜가 지극히 무거운지라 이번에 다시 변방에 임하게 되었거니와 몇 해를 넘기지 않아 마땅히 그대와 더불어 돌아가게 될 터인즉 전일의 일에 혐의를 두지 말고 어디에 머물며 기다려 주시게 ' 하니 당강이 한편으로 부끄럽고 일면 감격하여 만만사례해 마지 않을 뿐이었다.

안여식이 영원위寧遠衛에 도착하여서는 드디어 총병總兵 조대수祖大樹와 함께 성벽과 해자垓字를 수축하고 군졸을 훈련시켜 이를 사수死守할 계책을 세웠는데 환관들이 또한 그 성공하는 것을 시기하여 마침내 황제께 아뢰어서는 공부상서工部尙書를 삼아 불러들이게 하였다. 안여석이 들어와서는 나랏일이 이미 잘못된 것을 알고 상소하여 사직하고 쉬게 해줄 것을 청했으나 황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또 병을 칭탁하여 다섯 차례 상서하니 황상이 잠시 동안만 쉬기를 허락하면서 육과六科의 간관諫官도 벼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하였다. 그러나 환관들이 글을 올려 ' 안여식은 나이가 70이니 다만 돌아가 한 몸이 편하게 함이 가하다 ' 하므로 황상도 또한 그렇게 여기고 봉록을 받아 지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안여식은 즉일로 길을 나서 돌아갔다.

이때에 이미 당강은 서울에 도착하여 지내다가 안여식을 따라 고향집으로 돌아갔는데 노자 등을 한결같이 안여식이 부담해 썼다. 고향으로 돌아온 수일에 안여식은 집과 전장田莊을 수습해 그 처자와 함께 내주萊州로 전향해 가고자 바다를 건너갈 계획을 세웠는데 당강이 즐겨 좇지 않으므로 안여식은 그 전장과 집을 처분하지 않고 당강에게 맡겼다. 안여식의 벗 소국진邵國珍이 말하기를 ' 당강이 바야흐로 권세를 천단하던 날 고향에 대한 의리와 친구에 대한 정의情誼가 전혀 없이 공격하고 배척하기에 오히려 못미칠까 걱정이었거늘 공이 어찌 보살피는 것이 이같이 깊으신가? ' 하니 안여식이 ' 그가 비록 나를 저버렸으나 내가 어찌 그를 등지겠는가. 하물며 천하가 대전으로 위태롭게 망하는 것이 발돋움해 기다릴만큼 되어 있는지라, 내 보기에 10년이 되지 않아 우리 모두가 오랑캐 풍습을 좇게 될 터인즉 재물과 전택인들 어찌 아껴 지킬만한 것이겠는가 ' 하였다. 이에 소국진이 ' 나도 좇아 가고 싶은데 가하겠는가? ' 하므로 안여식이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 소국진과 더불어 당강을 버리고 떠나 장백산長白山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뒤에 청淸나라 군사가 황제의 서울을 함락시키니 숭정崇禎(명 의종毅宗) 황제가 스스로 불에 타 죽고 홍광弘光(명 복왕福王) 황제가 금릉金陵(남경南京)에서 즉위했다. 당강은 청나라에 항복하여 차츰 등용되어서는 힘을 쓰게 되니 조선朝鮮을 침략하고 욕보인 것이 다 그가 자아낸 바였다. 당강은 청나라 섭정왕攝政王에게 총애를 받았으나 왕이 몰락하자 그 3부자가 함께 도륙을 당했다.

안여식은 소국진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황성도皇城島에 닿아서는 여러 해를 지내다가 이윽고 조선으로 향해 와 상륙해서 다시 영남嶺南으로 가서는 태백산太白山 아래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신묘년辛卯年(효종 2년, 1651) 봄에 권칙權式(저자)이 관직의 일로 청풍군淸風郡(제천시 청풍면)에 이르렀을 때 안여식의 아들 천명天命을 주막에서 보았는데 권칙이 그 사람됨을 기이하게 생각해 더불어 숙박하며 비로 여러날을 묵었거니와 그가 권칙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해준 것이다. 인하여 그가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는 나이 82세에 얼굴은 붉고 윤기가 흐르며 행보는 나는 듯하여 나이 40여세된 이와 같았는데 늘 말하기를 ' 조선은 평소에 산수향山水鄕이라 일컫는데 묘향妙香(평북 영변)과 칠보七寶(함북 길주)는 서북에 가깝고 지이知異는 피란지가 아니니 오직 태백太白이 제일의 복지福地이다. 지금 이후로 30여년에 마땅히 진인眞人이 섬서陝西에서 일어나 해내海內를 삭평削平하면 태평세太平世가 이로부터 비롯될 터이나 나는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마땅히 중원中原으로 돌아가라 ' 하였다 하였다. 안여식에게 일곱 아들이 있으니 원명元命、진명眞命、대명大命、신명信命、수명受命、천명天命、보명保命이다. 권칙이 우리나라의 역년歷年을 물으니 천명은 다만 만만년이라고만 할뿐이었다. 또 병란兵亂을 피할 곳을 물으니 ' 가친家親이 늘 말씀하시기를 태백이 으뜸이고 면양沔陽(충남 당진군 면천면)이 버금이요 예맥穢貊(강원도)이 그 다음이라 하시었다 고 하였다. 또 다른 일을 물으니 모두 모른다고 답하였다. 다음날 작별할 때에 시를 지어 주면서 무어라무어라 하였는데 해득지 못할 말이 많기에 묻고자 했더니 내게 읍을 하고는 떠나가 버리니 아아, 또한 기이한 일이었다. 그 시에 다음과 같이 이르고 있었다.

일입중명월미고日入重冥月未高 : 해가 져 거듭 어두운데 달은 아직 솟지 않고
은대금궐은층도銀臺金闕隱層濤 : 은대와 금궐이 겹겹이 치는 물결에 숨는데
회두태백천봉벽回頭太白千峰碧 : 고개 돌려 태백의 1천 봉우리 바라보니
회향운간불금포回向雲間拂錦袍 : 마침 구름 사이를 향하며 비단 도포자락 나부끼네

실생활手指鍼 ⑦⑥

가족 건강을 내가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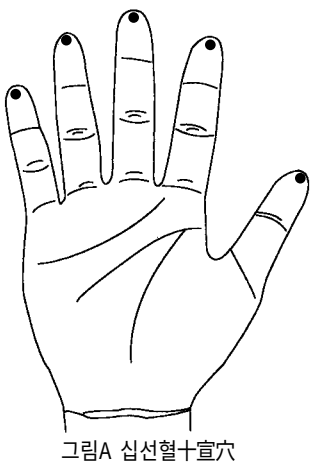
權 赫 來
편집고문

중풍의 치료법

중풍은 풍의風懿(정신몽매증상), 풍비風痺(전신불수 증상), 편고偏枯(반신불수 증상), 마목불인痲木不仁(전신마비증상) 등의 네 가지로 분류되며 치료법으로는, 사암舍岩은 발병 원인이 오장五臟에서 일어난 것을 중장증中臟症, 육부六腑에서 일어난 것을 중부증中腑症이라 하여 장부별로 나누어 논했고 고려수지침 요법에서는 양실증、신실증、음실증 등 삼일체질三一體質로 검사해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증상별 치료법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임상결과 나타난 중풍의 증상을 보면 무려 23가지나 된다. 그중에서 증상별로 몇 가지 치료법을 살펴보겠다.

1) 풍의風懿(졸중풍 · 뇌출혈)

건강하던 사람이 별안간 쓰러져 인사人事를 못차리고 수족과 전신을 뒤트는 증세를 말한다(각궁반장角弓反張).



그림A 십선혈十宣穴

치료법으로는 그림 A와 같이 우선 십선혈十宣穴을 사혈하고(소독된 출혈침을 사용) 그런 다음 안정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서암뜸을 떠준다)시켜 주면 치료효과가 빠르다. 고려수지침 요법으로는 이러한 증세를 담실膽實、간허肝虛에서 오는 일종의 경련으로 보고 있으나 주된 원인은 방광실膀胱實이기 때문에(전신의 근육을 제일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방광경膀胱經임) 그림 B의 방광승방膀胱勝方을 써주면 치료효과가 대단히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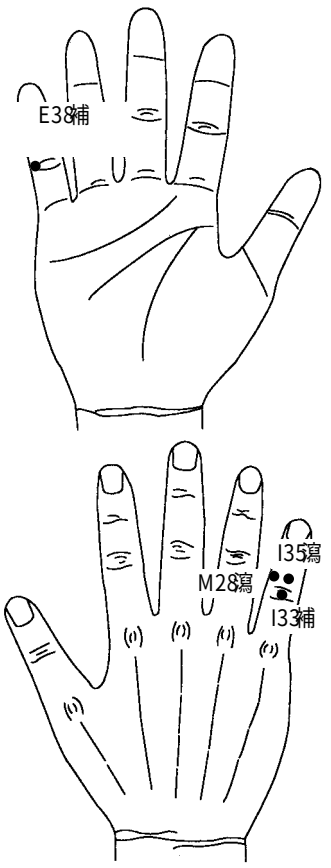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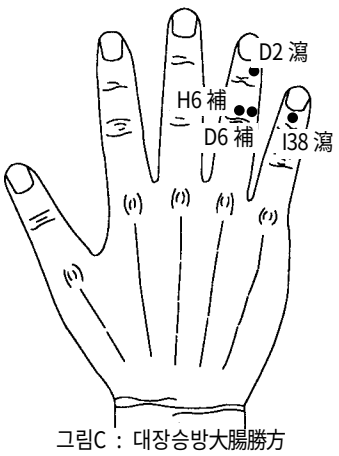


그림 B : 방광승방膀胱勝方

2) 구안와사口眼㖞斜

입과 눈이 삐뚤어진 증상을 말하며 요즘의 병명으로는 안면신경마비증이다. 이 병에 대해서도 학설이론이 많고 치료법도 많아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사암은 구안와사를 간허肝虛로 보고 있다.

고려수지침요법에서 임상한 예로는 좌양左陽 우신실右腎實증의 경우 우측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며 좌측이 건측健側(건강한 쪽)이 되어 좌측으로 돌아가고 우양右陽 좌신실左腎實이면 좌측 안면 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우측이 건측이 되어 우측으로 돌아간다.



그림C : 대장승방大腸勝方

이 경우는 그림 C와 같이 대장승방大腸勝方, 그림 D의 심정방心正方을 자침하면서 서암뜸을 떠주어 원기를 회복시켜야 빨리 치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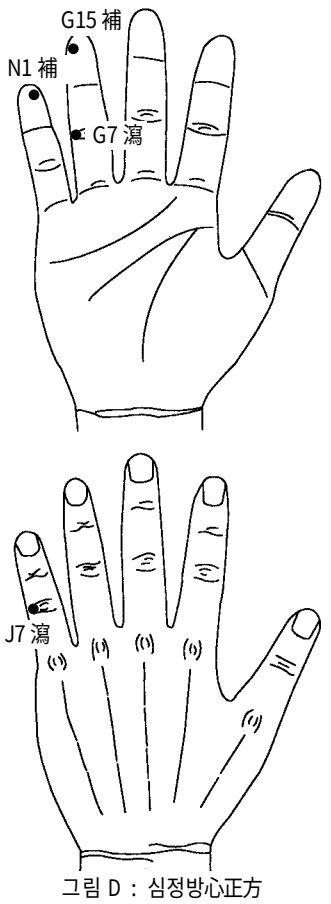


그림 D : 심정방心正方